야곱아 밧단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 왔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의 오랜 갈등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막상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염려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서가 기뻐하는 얼굴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 더 이상 함께 갈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벧엘로 올라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나안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숙곳에 거처를 마련하였습니다. 숙곳은 '오두막', '쉼터'라는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단강 동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겜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을 때 처음 도착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곳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곳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 커다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디나가 하몰의 아들이며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그 일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찾아 온 것입니다. 언제라도 가나안 왕들이 자신들에게 보복을 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 오셨습니다.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구는 위기를 벗어 날 수 있는 묘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벧엘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벧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사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벧엘의 일들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세겜을 떠나 벧엘로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세겜이 잘못된 장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벧엘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려한 야곱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가나안 왕들의 추격의 위협은 아랑곳하지 않고 벧엘로 올라가기로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또한 자신과 함께 있

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자"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벧엘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게 모르게 지금 야곱의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 안에 들어와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일행 안에는 밧단아람을 떠날 때에 라헬이 가지고 온 라반의 신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올 때 그들이 가지고 온 각종 이방 신상들과 그 신들을 기념하기 위한 장신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벧엘로 올라가자"고 하는 선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것입니다. "벧엘로 올라가자"고 하는 선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리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벧엘로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이곳에서 먼저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는 결단의 표현으로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을 섬겨야 하는지 그 대상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야곱과 그 자손들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일생을 통해 치열하게 지켜온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가지고 옵니다. 야곱은 이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을 일컫는 단어 "엘라"와 동일한 발음입니다. 예를 들면 단 2:18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할 때 사용한 단어가 이 "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상수리 "엘라" 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묻어 버리며 "엘라" 하나님만 섬기리라는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벧엘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

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드리며 그 분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 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창34:30)는 야곱의 염려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성을 떠나 이동 중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면 성안에서 방어하는 사람들 보다 훨씬 수월하게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리한 쪽은 많은 부녀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야곱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세겜 사람들의 복수를 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야곱 사람들을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야곱과 그 일행은 무사히 벧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예전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에 휘말리게 되고 생각지 않은 염려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떨어진 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이방신상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붙어 있는 그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간격이 훨씬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